

朝鮮後期 尙州鄉校 所藏 古書의 書誌的 分析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Old Books at Sangju Hyanggyo in Late Joseon Dynasty

권 오 덕 (Kwon, Oh Deok)*

최 기 척 (Choi, Ki Cheok)**

◁ 목 차 ▷

1. 머리말	3.2 상주향교 명부
2. 상주향교의 역사와 소장자료 현황	3.3 규정 및 규율 관련 자료
2.1 상주향교의 역사	3.4 기타 자료
2.2 소장자료 현황	3.5 소장자료의 가치
3. 소장자료의 서지적 분석 및 가치	4. 맺음말
3.1 제례 관련 자료	<참고문헌>

< 초 록 >

본고는 상주향교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서에 대한 실물조사를 바탕으로 그 현황과 각 서책의 형태 등 서지적 분석을 한 것이다. 조선후기에 형성된 상주향교 소장자료를 소개함으로써 상주지역 기록물의 진모를 파악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제례 관련 자료 6종, 상주향교 명부 9종, 향교의 입록 자격 및 규율 등을 엮어놓은 자료 4종, 기타 자료 4종 등 모두 23종으로, 대부분 17세기와 18세기에 작성된 필사본이다. 이상의 자료들은 조선후기 상주지역 향촌사회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要語: 尙州鄉校, 校案, 靑衿錄, 商山鄉彥錄, 傳掌記

< ABSTRACT >

The study is based on a survey of old books at Sangju Hyanggyo, we tried to bibliographic analysis such as the status of the books and the form of each books. Through this study, we intend to introduce the collection of Sangju Hyanggyo, which was form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o help understand the full extent of the Sangju area's records. The collected books by subject, there are a total of 23 titles as 6 related materials for ritual ceremonies, 9 lists for Sangju Hyanggyo, 4 other books for qualification and discipline for Hyanggyo. These books are mostly manuscripts from the 17th and 18th centuries. The above materials are very valuable materials to look at all aspects of the community in the Sangju area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 words: Sangju hyanggyo, Gyoan, Chunggeumrok, Sangsanhyangeunrok, Jeonjanggi

*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책임연구원(kwon-1027@hanmail.net) (제1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chuki1040@nate.com) (공동저자)

투고일: 2020년 2월 20일 최초심사일: 2020년 2월 25일 게재확정일: 2020년 3월 13일
서지학연구, 제81집, 209-238,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1.209>

1. 머리말

본고는 상주향교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서에 대한 실물조사를 바탕으로 각 서책의 형태 등 서지적 분석을 한 것이다. 현재 상주향교에 소장되어 있던 고서는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상주박물관에 기탁되어 있으며, 일부 자료는 대략적인 소개가 이루어져 있지만¹⁾ 그 현황이나 개별 서책에 대한 서지적 분석은 연구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상주향교의 역사와 소장자료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상주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는 상주향교 소장자료 23종에 대하여 주제별 분류 및 서지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지방분사로서 尙州分司에서 간행된 大藏經과 刊經都監本佛典 및 조선시대 상주에서 판각²⁾되어 간행된 서적과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 東學敎堂에서 간행된 서적 등 상주지역 기록물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주는 삼한시대부터 낙동강을 중심으로 농경문화가 발달하였고 수륙 교통이 교차하는 요충지였다. 삼한시대에는 沙伐國이 존재했고, 삼국시대에는 사벌주로 불리었다. 고려조 이후에는 상주목이 되어 경상도를 관할하는 절도사가 있었고 조선조에 이르러 200여년 동안 경상감영이 자리하였다. 이처럼 상주는 성읍국가시대부터 조선중기까지 영남지방 정치경제의 중심지였다.

15세기 이후부터는 타지역의 많은 사족들이 상주의 土姓土族이었던 尙山 金氏와의 혼인을 통해 상주로 이거하였다. 이들은 재지사족으로 성장하여 향교와 서원을 세력 근거지로 삼아 상주지역 사족 사회를 이끌어간다. 임진왜란을 거치며 사족 사회의 변동과 확대가 이루어졌고 더불어 지리적 환경으로 인한 호서 및 남해지역과의 많은 학문적 교류를 통해 영남의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17세기 후반부터 공론정치의 성향이 나타난다.

그 결과 1702년 영남지역 최초로 서인계 서원인 興巖書院이 건립되었고, 1716년에는 肅宗이 편액을 내려 서인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서인계 가문인 昌寧 成氏가 남인세력의 근거지인 道南書院에서 원장을 배출하며 서인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졌다. 이러한 상주지역 사족 사회의 특성은 조선후기에 형성된 상주향교의 소장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후기 상주향교 소장자료 23종에 대한 서지적 분석과 함께 상주향교의 창건과 역사를 비롯하여 향교의 소장자료의 현황을 살펴보고, 소장자료가 형성된 시기인 조선후기 상주향교의 운영의 주체였던 재지사족들의 형성과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

2) 상주에서 판각된 책판 등의 기록을 보면, 1576년에 간행된 을해자본 『攷事撮要』 尙州 冊板條부터 1730년경에 작성된 『嶺南冊板』의 尙州 冊板條까지 모두 100여종의 책판이 판각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

2. 상주향교의 역사와 소장자료 현황

2.1 상주향교의 역사

상주향교는 南山 九月峯에 위치³⁾하여 현재 상주 시내를 등지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상주 三岳의 명산으로 알려진 甲長山을 바라보고 있다. 일찍이 賢儒의 위패를 봉안하고 상주지역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창건되었다. 창건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문헌상으로 崔滋(1188~1260)의 『補閑集』에 상주향교와 관련한 최초의 기록이 확인된다.⁴⁾ 한편 상주향교의 창건 연대와 관련하여 고려 成宗代(960~997)에 州縣에 향학을 설치하고 12목에 경학박사를 파견하고⁵⁾ 학교를 설치하라는 조정의 명에 따라 1247년(고려 고종 34) 이전에 이미 상주목에 상주향교가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商山誌』에는 향교가 읍성에서 5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宣德(1426~1435)初에 목사 曹致가 南樓를 건립하였고, 洪汝方의 기문이 있다⁶⁾고 하였다.

상주향교의 모습은 건물의 중수 및 확장으로 창건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창건 당시는 공자 및 현유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과 그 앞의 좌우에 동재와 서재가 있었을 것으로⁷⁾ 추정되며, 宣德초에 이르러 출입문의 위치에 목사 조치가 남루를 건립하였다. 이후 1492년에 洪貴達이 쓴 尙州鄉校重修記에서는, “成宗이 銓曹를 거치지 않고 姜龜孫을 상주목사로 직접 발탁한 사실과 姜龜孫이 향교를 중수한 일을 적은 뒤 향교 유생 金寶荊 등의 부탁으로 기문을 쓴다고 하였다.”라는 기록을 통하여 15세기에 향교가 중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향교가 소실되어 1610년(광해군 2)에 목사 姜綱이 대성전을 중창⁸⁾하였고, 1612년에는 동·서무와 연당을 짓고, 1617년에는 명륜당을 증건하였으며 1631년(인조 9)에는 향교의 일곽을 중수하였다. 또한 1832년에 명륜당과 1841년에 대성전을 중수하기도 하였다. 1949년에 이르러 향교의 경내 일대가 남산중학교의 前身인 상주고등공민학교의 교실로 사용되었고, 1951년에는 남산중학교가 동·서무를 교실로 개조하고 대성전을 강당으로 사용하였다.

3)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2길 99.

4) 『補閑集』 卷下.

“... 丁未春帶玉出鎮東南路巡歷上洛自牧守至于鄉校諸生儒呈歌詩引啓駢填街路有四大老年七八十餘自號尙原四老呈短引并絕句詩四首...”

5) 姜大敏, 『韓國의 鄉校研究』 (釜山: 慶星大學校出版部, 1992), 19. 참조.

6) 『商山誌』 “鄉校在州南五里有南樓宣德初判牧曹致建洪汝方有記...”

7) 김지민, “鄉校建築의 造營規範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2), 8.

8) 이와 관련하여 참고자료로 2005년 대성전 중수시 종도리에서 “皇命萬曆 三十八年 庚戌潤三月二十二日 牧使 晉昌君 姜綱 都廳前 掌令 趙翊 都有司 生員 金鳳儀 前洗馬 李堧 進士 黃廷幹 生員 金遠振 都色 尹希文 劉億 提督官 高尙顏 進士 康應哲 生員 高[馬+展]運 進士 趙光璧 生員 金克誠 木手呂玉 李守〇”와 같은 墨書가 발견이 되었다.



<그림 1> 홍귀달, 상주향교중수기 「허백정문집」 권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편 1950년 북한군에 의해 위패를 비롯한 제례용품 등이 소각되었으며, 1952년에 5聖의 위판을 다시 봉안하였다. 1961년에는 명륜당이 화재로 소멸되어 태평루 건물을 이간하여 명륜당으로 사용하였다. 1990년 태평루를 北川王亂戰跡地로 이간하고 이듬해 명륜당을 복원하였다. 이상의 과정들을 거치며 대성전, 동·서무, 내삼문, 명륜당, 동서계, 외삼문, 교직사 등의 현재 모습을 갖추었다. 상주향교의 대성전은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자를 비롯하여 4聖, 孔門 10哲, 宋朝 6賢, 우리나라 18賢 등 총 39현에게 매년 2월과 8월 上丁日에 釋奠大祭를 봉향하고 있다.

2.2 소장자료 현황

상주향교의 고서는 현재 모두 23종이며 주제별로 살펴보면, ‘제례 관련 자료, 상주향교 명부, 규정 및 규율 관련 자료, 기타 자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고서 23종의 서명, 책수, 작성시기, 판본 등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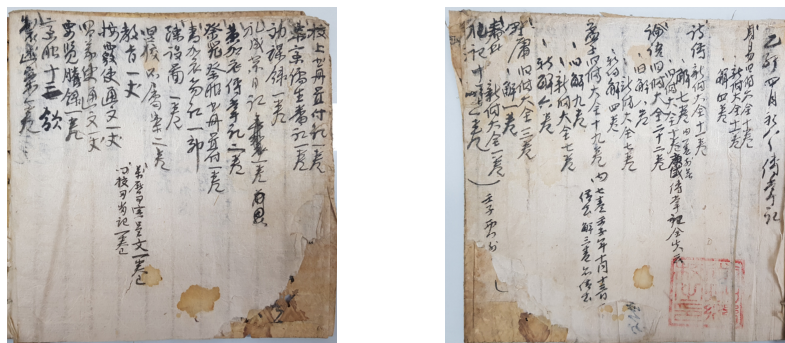
<표 1> 상주향교 소장 고서 현황

주제별 분류	번호	서명	책수	작성시기	판본
제례 관련 자료	1	駿奔錄	1册	1620~1625年	筆寫本
	2	焚香錄 丁丑正月朔至庚辰正月朔	1册	[1697~1700年]	筆寫本
	3	焚香錄 丙午十一月初丁未十一月初一日	1册	[1726~1727年]	筆寫本
	4	焚香錄-假題	1册	1782~1785年	筆寫本
	5	告由事實錄	1册	1878~1890年	筆寫本
	6	釋奠正配位饌實圖	1册	朝鮮後期	筆寫本

주제별 분류	번호	서명	책수	작성시기	관본
상주향교 명부	7	校案 (1)	1册	17世紀 中半	筆寫本
	8	校案 (2)	1册	17世紀	筆寫本
	9	尙山鄉彥錄	2册	18世紀 後半	筆寫本
	10	靑衿錄	1册	1692~1718年	筆寫本
	11	靑衿錄 加錄	1册	1723~1738年	筆寫本
	12	丁卯加錄	1册	1747年	筆寫本
	13	鄉案加錄草	1册	1756年	筆寫本
	14	司馬錄	1册	[1792年 以後]	筆寫本
	15	任員錄 一	1册	1785~1800年	筆寫本
규정 및 규율 관련 자료	16	靑衿錄完議	1册	1664~1671年	筆寫本
	17	儒案節目	1册	1773年	筆寫本
	18	鄉約節目	1册	1835年	筆寫本
	19	鄉會完議	1册	朝鮮後期	筆寫本
기타 자료	20	鄉中免役完議案	1册	17世紀 初半	筆寫本
	21	傳掌記	1册	[1639年 以後~1759年 以前]	筆寫本
	22	鄉校田畝賭租捧上成册	1册	[18世紀]	筆寫本
	23	梅陰羅先生丙子亂護聖行蹟	1册	18世紀末 以後	筆寫本

<표 1>에 의하면, 제례 관련 자료는 「준분록」, 「고유사실록」, 「분향록」, 「석존정배위찬실도」 등 모두 6종으로 향교에서 시행된 고유제 사실과 제례를 주관한 인사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상주향교 명부는 모두 9종으로 상주향교 입록 구성원을 살펴볼 수 있는 「교안」과 「청금록」, 사마시의 합격 명단을 기록해 놓은 「사마록」 등이 있다. 향교의 입록 자격 및 규율 등을 엮어놓은 것으로 「유안절목」, 「청금록완의」, 「유안절목」, 「향회완의」 등 4종이 있다.

더불어 기타 자료로 상주향교의 서책관리를 위해 작성된 「전장기」, 免役에 관한 증빙 문서인 「향중면역완의안」, 병자호란 때 공자를 비롯한 선현의 위패를 지킨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한 「매음나선생병자란호성행적」 등이 있다. 본 자료들은 모두 17세기 초부터 19세기까지 작성된 필사본으로 17세기에 작성된 6종을 비롯하여 18세기 8종, 19세기 2종, 조선후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는 것이 4종이며, 17~18세기에 걸쳐 작성된 2종과 18~19세기 것이 1종이 있다.



<그림 2> 「乙卯四月初八日傳掌記」 제1장 앞면(우)·제3장 뒷면(좌)

그리고 상주향교 소장자료와 관련된 기록으로 3장에서 분석할 『傳掌記』에는 17~18세기 당시 상주향교에 소장된 서책의 서명과 현황 및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서책의 서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표 2> 「乙卯四月初八日傳掌記」內 書冊名

장차	서명
1장 앞면	周易大全·解, 詩傳大全·解, 論語大全·解, 孟子大全·解, [學]庸大全·解
1장 뒷면	五禮儀, 杜詩, 蒼石集, 左傳鈔評, 左傳, 通鑑, 愚伏集, 晦齋集, 東文選, 小學大全·解
2장 앞면	益齋集, 大谷集, 鶴峯集, 西厓集, 宋鑑, 聖學輯要, 醒翁集, 選文掇英, 哭班錄, 詩正文, 孝經大義, 近思錄, 軍[人]雜錄, 春秋, 禮記
2장 뒷면	三綱行實, 二倫行實, 書傳大全·解, 黃加衣講案, 靑加衣靑衿錄, 任員錄, 靑加衣駿奔錄, 黃加衣駿奔錄, 靑衿錄完議, 鄉會完議, 校中完議
3장 앞면	靑加衣完議, 靑加衣書冊錄, 校案, 別錄, 立番錄, 哭班錄, 位板序次錄, 靑加衣儒生講案, 道內諸會錄, 黃加衣儒生講案, 無加衣傳掌記, 各書堂儒生案, 靑加衣契香錄, 黃加衣契香錄, 唐案新要錄, 書冊置付記
3장 뒷면	校上書冊置付記, 兩齋儒生番記, 初課錄, 禮成等日記, 黃加衣傳掌記, 祭器祭服書冊置付, 靑加衣笏記, 陳設圖, 鄉校所屬案, 教旨, 鄉校田畝記, 按覈使通文, 倡義使通文, 要覽臚錄, 齋服十三韻, 製述案

위 기록을 통해 확인된 조선후기 상주향교에 소장되었던 서책은 대략 80여종으로, 현재 전하고 있는 23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후대에 전승되는 과정에서 내·외적인 요인에 따라 전승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장기』에 기록된 자료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의 자료와 기록들은 모두 조선후기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상주지역 재지사족들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주의 土姓土族은 15세기까지 商山 金氏 일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5세기 이후부터는 타지역의 많은 사족들이 상산 김씨와의 혼인을 통해 사위 또는 외손으로서 상주로 이거하였다.

대표적으로 順天 金氏, 豊山 金氏, 豊壤 趙氏, 東萊 鄭氏, 長水 黃氏, 羅州 丁氏, 南陽 洪氏, 淸州 韓氏, 晋陽 鄭氏, 晋陽 姜氏, 光州 盧氏, 興陽 李氏, 永山 金氏, 礪山 宋氏, 沃川 全氏, 信川 康氏 등이며,⁹⁾ 이들은 이후 상주의 재지사족으로 성장하였다. 임진왜란을 거치며 昌寧 成氏, 昌寧 曹氏, 安東 權氏 등의 사족들이 상주로 이주해 오고 기존의 정착 사족들이 타지로 이거함에 따라 사족 사회의 변동과 확대가 이루어졌다. 한편 상주 최초의 서원인 도남서원은 1605년 상주 사족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원장들의 본관을 보면 도남서원의 창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문의 출신들이다. 이들은 진양 정씨, 홍양 이씨, 경주 손씨, 상산 김씨, 영동 김씨, 여산 송씨 등으로 17세기 초반부터 상주의 사족 사회를 이끌었다. 18세기에 이르러 서인계 가문인 창녕 성씨가 남인의 근거지인 도남서원에서 원장을 배출하여 서인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상주는 지리적으로 호서

9) 『商山誌』 卷2 人物.

와 접하는 경계이자 낙동강을 통한 남해지역과의 활발한 교류의 결과 17세기 후반부터 영남의 다른 지역과 달리 공론정치의 성향이 나타난다. 또한 17세기 후반 및 18세기에 들어서는 당시 상주는 창녕 성씨 成濫 계열이 영남 서인계의 중심이 되어 세력을 확산시켰고, 1702년에 영남지역 최초로 서인계 서원인 興巖書院이 건립되었다. 이후 1716년에는 肅宗이 편액을 내려 상주지역 노론세력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3. 소장자료의 서지적 분석 및 가치

3.1 제례 관련 자료

3.1.1 [준분록]



<그림 3> 「준분록」 앞표지, 본문 제1장 앞면

- 表 題 : (墨書) [駿奔錄]
- 刊 事 項 : 筆寫本
- 필사시기 : 1620-1625年
- 형태사항 : 不分卷 1冊(33張). 四周單邊, 無界, 35.3×23.9cm. 線裝(5針眼)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준분록」은 상주향교에서 거행된 고유제 및 春秋享祀 당시 참석하였던 인사 및 獻官執事を 기록해놓은 자료로 본문의 구성을 예로 들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준분록」에 기록된 시기별 참석자 명단

시기	참석자
庚申(1620) 四月二十日 告由	進士 趙光望 / 生員 趙基遠·曹希仁 / 進士 李大圭 / 幼學 趙[][] // 辛洙 (掌議) / 李身圭 / 金珩 / 金堡 (有司) / 金銑 (掌議) …
庚申(1620) 秋享	行牧使 金止男 / 提督官 李汝積 / 生員 金遠振 …
乙丑(1625) 春享	獻官執事 / 生員 金遠振·金廷堅 / 進士 康用侯 …
乙丑(1625) 秋享	獻官執事 / 牧使 洪思敷 / 進士 宋光國·金安節·趙光璧 …

<표 3>과 같이 「준분록」에는 고유제 및 춘추향사에 참여한 참석자 명단과 제례 당시 역임하고 있었던 관직 또는 향교에서의 직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준분록」에 기록된 작성시기를 보면, 작성 경신년(1620), 신유년(1621), 임술년(1622), 계해년(1623), 갑자년(1624), 을축년(1625)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작성되어졌으며 총 414명이 확인된다. 중복으로 기재된 경우가 많으며 중복을 제외할 경우 실제 인원은 모두 146명이다.

당시 상주에 건립되었던 도남서원의 자료와 향안을 서로 비교해 보면 「준분록」에 기록된 142명의 대다수가 중복으로 등재되어 있다. 조선후기 향안의 입목과 서원의 출입은 양반사족들의 전유물이었다. 이를 통해 당시 상주향교가 서원과 마찬가지로 양반사족들의 활동근거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후기 향교의 교생은 양반사족으로 이루어진 額內校生과 서얼 및 평민층으로 이루어진 額外校生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서얼 및 평민층의 액내교생으로의 입교가 점차 확대되자 양반사족은 액내교생이 아닌 청금유생으로 입교하여 신분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다. 「준분록」의 기록에서도 액외교생의 명단이 확인되고 상주향교의 청금록은 17세기 후반에 작성되어 지는 것으로 보아 「준분록」이 작성된 1620년 당시 양반 사족들은 액내교생으로 입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1.2 분향록 (정축정월삭지경진정월삭)

- 表 題 : (墨書) 焚香錄
- 관 사 향 : 筆寫本
- 필사시기 : [1697-1700年]
- 형태사항 : 不分卷 1册(32張), 無界, 5行字數不定, 29.8×22.5cm. 線裝(5針眼)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분향록」은 매월 초하루와 보름 향교에서 거행된 제례인 朔望祭를 주관했던 인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은 상주향교에서 정축년(1697)부터 경진년(1700)까지 작성된 분향록으로 목사 2명, 유생 5명, 교임 40명 등 모두 47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당시 상주향교에서 거행된 제례의 모습 및 제례를 주도한 교임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1.3 분향록 (병오십일월초정미십일월초일일)

- 表 題 : (墨書) 焚香錄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726-1727年]
- 형태사항 : 1冊(7張), 無界, 8行字數不定, 25.5×23.5cm. 線裝(5針眼)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이 책은 병오년(1726)부터 정미년(1727)까지 작성된 상주향교의 분향록이다. 제례가 거행된 날짜와 종류, 주관 인물의 관직명 또는 향교 직책, 그리고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제례의 주관은 매달 새로운 인사가 아닌 동일 인물이 중복적으로 주관하는 경우가 많다.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 제례 주관 인사의 수는 총 20명이 기록되어있다.

3.1.4 [분향록]

- 假 題 : [焚香錄]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782年 10月-1785年 7月
- 형태사항 : 不分卷 1冊(18張). 行字數不定, 31.4×21.6cm. 線裝(5針眼)
- 印 記 : ① (長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② (卷末, 長方形 四角黑印, 陽刻) [尙州鄉校]

이 책은 1782년 10월부터 1785년 7월까지 상주향교에서 매월 초하루[朔]와 보름[望]에 거행된 삭망제를 주관한 인물을 기록한 명단이다. 본문은 “十月朔焚”으로 시작하는데, 형식으로 볼 때 원래는 “壬寅正朝焚”으로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의 내용은 몇 월의朔焚과 同月望焚으로 기록되어 있다. 분향을 주관한 인물은 장의와 재임으로 성명을 기입하였고, 上齋가 참여할 경우에는 장의보다 먼저 기입해 놓았다. 필체로 볼 때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쓴 것은 아니며, 각각의 분향 시점에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인다. 삭망제 이외에도 임의의 날에 분향을 한 기록들도 확인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날짜를 쓰고 다음 줄에 신분과 성명을 적고 ‘帶恩謁聖’ 또는 ‘謁聖’으로 표시하였다. 알성에서 聖은 성현에 대해 경의를 표시하는 의미에서 擡頭法을 사용하였다. 상주목사로 재직할 심기태의 경우에는 ‘牧使 沈基泰 謁聖’으로 표기되어 있다.

3.1.5 고유사실록

- 권 수 제 : 告由事實錄
- 表 題 : (墨書) 告由事實錄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878-1890年
- 형태사항 : 不分卷 1冊(7張). 無界, 行字數不定, 23.1×26.7cm. 線裝(5針眼)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 告由事實錄記 : 大凡二丁之享禮萬世之大經也…戊寅(1878)八月初九日成耆源記

본 「고유사실록」은 무인년(1878)과 경인년(1890)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그 구성은 ‘고유사실록’·‘告由式’·‘祝文式’·‘官下帖’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당시 상주향교에서 거행되었던 고유제의 시행과정과 제례의 절차, 축문 양식, 관에서 내린 명령을 기록하고 있다.

본래 향교에서는 매년 春秋에 享祀를 지내는 것이 원칙인데, 1878년 5월 당시는 哲宗의 妃인 哲仁王后가 승하를 하였다. 禮法상 國恤 시에는 서원, 향교 등의 모든 제사가 중지된다. 따라서 상주향교에서는 秋享을 정지하고 이러한 연유를 문묘에 고하는 告由祭만을 지내는데, 이러한 과정이 「고유사실록」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1878년과 1890년 國喪이라는 상황에서 향교 제례의 구체적인 모습과 고유제의 시행과정이 이 책을 통해 나타난다. 또한 고유제의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호서지역 노론과의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을 통해 상주와 호서지역 노론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1.6 석전정배위찬실도

- 제1장 제목 : 釋奠正配位饌實圖
- 판 사 항 : 筆寫本
- 형태사항 : 不分卷 1冊(插圖, 8張). 四周單邊(鄣寫), 行字數不定. 45.1×34.0cm. 線裝(5針眼)
- 필사시기 : 朝鮮後期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석전정배위찬실도」는 饌實圖, 位版圖 등의 제례에 관련된 그림을 설명해 놓은 것으로, 본 책의 서명은 제1장의 삽도 제목에 따라 ‘釋奠正配位饌實圖’로 하였다. 제 1장부터 3장에 걸쳐 제사의 유형에 따라 陳設하는 방법을 그린 그림과 위패의 설명, 축문식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佩玉, 方心, 冠, 笏, 鞋襪 등의 품계에 따라 갖추어야 할 것들을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음 장에는 魚鱸, 豚拍, 절인 고기, 大羹, 和羹, 醴齊, 盎齊 등의 제사에 올리는 음식에 대한 설명과 祭物을 올릴 때 알아야 할 참고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冪, 爵, 杓, 국그릇, 다양한

종류의 제기, 도마, 광주리, 술 항아리 등의 제례에 필요한 도구의 그림과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또한 마지막 장에는 제사 때 입는 예복과 끈, 蔽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2 상주향교 명부

3.2.1 교안 (1)



<그림 4> 「교안」 앞표지, 본문 제1장 앞면

- 表 題 : (墨書) 校案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661年 以前]
- 형태사항 : 不分卷 1册(22張). 無界, 5行字數不定, 39.4×24.3cm, 線裝(5針眼)
- 印 記 : ①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②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牧使之印]

상주향교의 「교안」은 상주지역 양반들의 교안 입록 명부로 '儒案' 또는 '靑衿錄'과 그 성격이 같다. 교생고강의 실시 이후 양반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교생안에 입록하지 않고 유생안 또는 청금록을 통해 자신들만의 명부를 작성하였다. 이 책은 1면에 5명을 기준으로 기록하였고, 총 200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일자는 없으나 상주향교 소장인 또 다른 「교안」과 비교해보았을 때 중복된 인물들을 통해 1661년보다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과 「道南書院創設稷案」에 나타난 부조 기록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서원의 참여 인원이 「교안」에서 다수 발견된다는 점에서 당시 향교와 서원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2.2 교안 (2)

- 表 題 : (墨書)校案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661年 以前-1676年]
- 형태사항 : 不分卷 1冊(32張), 無界, 6行字數不定, 39.4×24.3cm. 線裝(5針眼)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본 「교안」은 加錄의 형태이고, 명부 구성은 1면에 6명을 기준으로 기록했으며, 먹이 번진 뒷면의 이름 란은 공란으로 두었다. 이름 아래에는 '故', '年滿', '移居', '生員', '叅奉' 등과 같이 해당 인물의 사망, 거주지 이동, 신분, 직책 및 개명 사실 등을 표시하였다. 총 362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기록된 날짜를 보아 비정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 기입된 명부로 보인다. 이 책을 통해 17세기 이후 상주향교의 인적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3.2.3 상산향언록

- 題 簽 題 : (墨書)商山鄉彥錄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8世紀 後半]
- 형태사항 : 2卷 2冊. (上)四周雙邊(罫寫)/(下)四周單邊(罫寫), 有界(罫寫), 8~9行字數不定, 31.7×31.1cm. 邊鐵(朴乙釘 5개)
- 張 數 : 上卷(139張), 下卷(91張)
- 序 · 跋文 : (尙州鄉射堂題名序) ① 尙吾州也肇國自沙伐在新羅…嘉靖辛亥秋日嘉善大夫吏曹參判周世鵬(1495~1554)序
② 按此序文慨鄉風之不競轉薄…鄉人前弘文館校理李竣(1560~1635)跋
③ 鄉有案何辨世族也…萬曆四十五年丁巳日南至鄉人嘉善大夫前行江陵大都護府使鄭經世謹(1563~1633)序
- 앞표지 裏面 墨書 : (題商山鄉彥錄家衣內面) 年月日商山鄉彥錄奉安閣成於太平樓…昏朝丁巳後三百四十一年(1957)歲舍丁酉春三月甲子后孫興陽李鍾麟謹書

「상산향언록」은 조선시대 尙州牧의 향안으로 상권에는 상주목 출신 인사들의 서·발문과 16세기 부터 1727년까지의 입록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座目 앞에는 차례로 愼齋 周世鵬(1495~1554), 蒼石 李竣(1560~1635), 愚伏 鄭經世(1563~1633)의 서문 및 발문과 함께 앞표지 裏面에 李鍾麟이 1957년에 쓴 '題商山鄉彥錄家衣內面'이 수록되어 있다.

주세붕이 쓴 서문의 序題는 '尙州鄉射堂題名序'로 1551년에 쓴 것인데 그의 문집인 「武陵雜稿」 권7에는 尙州留鄉座目序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서문을 통해 1551년 경재소와 유향소의 좌목이 작성되는 과정이 확인되는데, 당시 경재소와 상주목 유향소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주세붕

의 서문 다음으로 기록된 이준의 발문은 1617년 정경세와 더불어 향안을 새롭게 증수하면서 쓴 것으로, 그 내용은 주세붕의 서문에 대한 일종의 반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¹⁰⁾

한편 정경세의 서문도 이준의 발문과 같은 해인 1617년 향안이 새롭게 작성될 때 쓴 것이다. 정경세는 상주 출신으로, 서문을 쓸 당시 江陵大都護府使로 있었다. 정경세가 쓴 서문을 통해서 1617년 상주향안이 증수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진왜란 이전 상주향안이 작성되던 추이를 간략하게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권의 앞표지 이면에는 이종린이 1957년에 쓴 ‘제상산향언록 가의내면’이 있는데 「상산향언록」이 태평루에 봉안한 사실과 태평루 봉안 이전 「상산향언록」이 제대로 보관을 하지 못하여, 표지가 헤지고 상권의 題簽題 다섯 글자 가운데 두 글자만 남아있는 사실을 등을 말하고 있다. 다음 <표 4>는 「상산향언록」 상, 하권의 좌목에 기록된 입록자 수이다.

<표 4> 「상산향언록」 상, 하권의 좌목 입록자 수

권차	좌목	입록자 수	비고
상권	尙州鄉案舊錄	308명	1595년
	萬曆二十三年乙未冬錄	8명	1595년 겨울 입록자
	萬曆二十四年丙申春	54명	1596년 봄 입록자
	萬曆二十七年己亥冬錄	23명	1599년 겨울 입록자
	萬曆三十三年乙巳秋錄	37명	1605년 가을 입록자 * 削籍: 弘文校理 姜弘立
	萬曆四十五年丁巳春錄	60명	1617년 봄 입록자
	萬曆四十五年丁巳冬錄	10명	1617년 겨울 입록자
	崇禎三年庚午春錄	56명	1630년 봄 입록자
	崇禎八年乙亥仲冬錄	67명	1635년 (음)11월 입록자
	丁亥仲秋錄	87명	1647년 (음)8월 입록자
	辛卯仲夏錄	22명	1651년 (음)5월 입록자
	戊戌孟春錄	5명	1658년 봄 입록자
	丁未閏四月日錄	207명	1667년
	壬申八月日錄	365명	1692년
	癸卯十二月日錄	342명	1723년
丁未十二月日錄	322명	1727년	
하권	己巳四月日錄	437명	1749년
	甲申仲冬己巳錄還書	157명	1764년 * 1749년의 '己巳四月日錄'을 새롭게 작성 * 己巳四月日錄과 중복 인물 없음
	甲申仲冬錄	154명	1764년 * 甲申仲冬己巳錄還書 기재 후, 1764년 당대 입록자 수록
	辛卯十月日甲申錄釐正	288명	1771년
	新錄	260명	[1772-1774년]

10) 주세붕은 서문에서 상주가 고을 규모에 비해 드러난 인재가 드물다고 하였고, 아울러 집필하는 자가 속여서 본조에서는 오로지 부녀 최씨만이 드러나고 있음을 한탄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준은 주세붕이 언급한 내용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며, 부녀 최씨 또한 어느 문적에서 드러난 인물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상주 출신의 인물이 적다는 주세붕의 언급이 확실한 근거가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좌목에 나타난 명단을 통해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상주 지역의 향안 작성을 주도했던 가문을 추측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향안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지방관을 입록시키기도 하였고, 상주 지역에 연고를 가진 중앙관료도 확인할 수 있다.

3.2.4 청금록

「청금록」은 1692년부터 1718년까지 27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작성된 향안으로 상주향교와 관련된 사족의 명부이다. 본문은 ‘加錄’으로 쓰고 인명을 기입한 다음 ‘際’로 끝을 표시하고 기록연도를 적은 다음 ‘上齋’, ‘掌議’가 ‘姓氏’와 수결을 기입하고 있다.

임신년(1692)부터 무술년(1718)까지 27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작성되었으며, 총 709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작성주기는 6개월 정도로 짧은 기간도 있으나, 대체로 1~2년 주기로 加錄되고 있다. 작성연도와 등재 인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청금록」 작성연도별 등재 인원

작성연도	등재 인원	작성연도	등재 인원
壬申(1692) 8월 9일	46	戊子(1708) 8월 3일	29
甲戌(1694) 2월 7일	19	己丑(1709) 2월 6일	26
丁丑(1697) 8월 10일	53	庚寅(1710) 2월 2일	16
庚辰(1700) 2월	22	辛卯(1711) 2월 6일	61
辛巳(1701) 2월 9일	59	甲午(1714) 8월 8일	78
癸未(1703) 8월 3일	35	丙申(1716) 2월 5일	70
甲申(1704) 2월 7일	35	丙申(1716) 8월 9일	53
丙戌(1706) 2월 8일	37	戊戌(1718) 8월 1일	29
丁丑(1707) 8월 7일	41	합계	709명

「청금록」에는 기본적으로 성명만이 기입되어 있다. 일부의 성명의 상단에는 ‘仙’, ‘叡’, ‘故’ 등이 부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하단에는 ‘未疫’, ‘移去’, ‘改名’, ‘進士’, ‘生員文科’ 등으로 개명을 하거나 사망 등 신변이나 신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부가적으로 기입을 하였다.

한편 병신년(1716) 2월 5일까지는 상재와 장의가 명단을 확인을 하였는데, 병신년(1716) 5월 9일부터는 都有司와 장의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후의 기록은 「청금록 가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2.5 청금록 가록

- 表 題 : 靑衿錄 加錄
- 刊 事 向 : 筆寫本
- 필사시기 : 1723-1738年

- 형태사항 : 不分卷 1冊(11張). 無界, 6行字數不定, 30.1×19.0cm. 線裝(5針眼)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청금록」 기록은 1723년부터 1738년까지 16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작성된 향안으로, 앞서 살펴본 「청금록」과 달리 본문의 시작이 '加錄'으로 시작하지 않고 명단이 바로 시작이 된다. 총 731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으며, 작성주기는 일정하지 않다. 「청금록」이 27년 동안 709명을 수록한 반면 이 책은 16년 동안 731명을 수록하고 있어 기간에 비하여 훨씬 많은 인명이 기입되어 있다. 작성연도와 등재 인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청금록」 기록 작성연도별 등재인원

작성연도	등재 인원	작성연도	등재 인원
癸卯(1723) 8월 9일	120	壬子(1732) 2월 9일	58
戊申(1728) 2월 6일	151	戊午(1738) 10월	264
辛亥(1731) 2월 2일	138	합계	731명

상주지역 과거합격자는 사족안에 등재된 양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안을 통해 향촌사회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금록」과 「정묘가록」 기록은 향교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족의 계통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2.6 정묘가록

- 表 題 : (墨書) 丁卯加錄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747年
- 형태사항 : 不分卷 1冊(11張). 四周單邊(單寫), 有界(單寫), 6行字數不定, 32.2×27.3cm. 線裝(5針眼)
- 印 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정묘가록」은 조선 후기 상주목에서 작성된 향안으로 입록된 인물들을 볼 때, 宋浚吉(1606~1672)의 위패를 봉안한 홍암서원에 출입하던 인물들을 주로 확인할 수 있다. 1723년부터 1738년까지 작성된 「청금록가록」 이후 1747년에 작성된 기록으로 조선 후기 상주지역의 사족사회 일면을 보여 준다.

3.2.7 향안가록초

- 表 題 : (墨書) 鄉案加錄草
- 판 사 향 : 筆寫本
- 필사시기 : 1756年
- 형태사항 : 不分卷 1冊(11張). 四周單邊(罫寫), 有界(罫寫), 6行字數不定, 32.3×27.1cm. 線裝(5針眼)
- 印 記 : (長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향안가록초』는 조선 후기인 1756년 3월에 상주목에서 작성된 향안으로 鄉員과 鄉任, 會員으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다. 본문은 ‘丙子三月加錄’으로 가록한 시기를 표시한 후 명단을 적고 있지만 본문 중에 종이를 오려내어 명단을 제거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 이전에 작성된 향안들과 달리 성명 외에 관직과 신분을 함께 기입하고 있다.

향원은 趙重晦를 비롯한 132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었으나, 이 중 9명은 종이를 오려내어 제거되어 총 115명의 인명이 확인된다. 명단의 끝에는 ‘際’를 쓰고 임원 ‘座首 曹復泰, 別監 曹夏鐸, 成爾澱, 李祖遠 등이 확인을 하고 하단에 수결을 하였다. 이어 ‘會員’으로 쓰고 전참봉 成爾漢, 部都事 金相箕, 理山府使 祖重稷, 幼學 成爾漸을 비롯한 13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不可規라는 제목으로 규칙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의 위에 글자는 가능하다. 성명의 아래에는 글자를 쓰지 않고, 글자를 비워놓는다. 둘 다 하지 않으면 하나가 빈 것으로 한정되고, 둘 다 비워져 있으면 당연히 하나를 하지 않은 것이다.¹¹⁾

기입된 성명의 하단에는 ‘改稷柱’, ‘改知遂’, ‘改檝’, ‘改櫟’, ‘改佃’, ‘改宇’ 등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는 이름을 변경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청금록』 등에서 과거의 합격사실이나, 이동 사항, 병력 등의 다양한 기록을 성명의 하단에 기입한 반면, 『향안가록초』에서는 改名을 한 사실을 기록하여 다른 향안과 차이를 보인다.

이 책은 1747년에 작성된 노론계의 향안인 『정묘가록』 이후인 1756년에 추가로 작성된 노론계의 향안으로 18세기 상주지역 노론계 인물들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2.8 사마록

- 表 題 : (墨書) 司馬錄
- 판 사 향 : 筆寫本
- 필사시기 : [1792年 以後]

11) 『鄉案加錄草』, “不可規/可字印姓名上/不字·空字 印姓名下/限二不一空/二空當一不.”

- 형태사항 : 不分卷 1册(27張). 四周單邊(罫寫), 有界(罫寫), 6行字數不定, 38.9×23.4cm. 線裝(5針眼)
- 印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 尙州司馬錄序 : 吾鄉舊有司馬所而其罷去在六十年之前則司馬錄之不傳亦久矣…崇禎甲戌(1634)長至日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知製教李竣(1560~1635)識

본 「사마록」은 상주지역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여 生員試와 進士試에 합격한 인물들의 명부를 기록한 것으로 字, 생년 등이 기록되어 있다.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崇禎 갑술년(1634)에 蒼石 李竣이 쓴 서문이 있는데, 이 서문은 이준의 문집인 「蒼石先生續集」 권5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마록」이 전해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는데, 고을의 공들이 고을의 鄉獻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지금 기록하려고 한다. 이 기록이 완성되면 향인들이 흥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문헌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에 보탬이 될 것이다. 1634년 하짓날 이준이 쓰다.

이준의 서문 다음으로 고려시대 인물인 李垠[前朝, 生, 洪武 戊辰(1388) 別將]을 시작으로 1792년에 생원시에 급제한 李升培까지 모두 279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각 인물들의 활동시기와 생원·진사·장원 기록, 성명과 생년 및 字 그리고 式年試, 增廣試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상주사마록」에 수록된 279명 가운데 중복된 인물은 1명이다. 생원 급제자 122명 가운데 장원이 3명, 진사 149명 중 장원이 5명이다. 양시 8명 중 장원이 1명, 그리고 문과 급제자가 46명이다. 이 가운데 盧守愼(1515~1590)은 생원, 진사의 양시는 물론 문과에도 장원을 한 인물로 三魁先生이라 불리며 상주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힌다. 이처럼 이 책은 상주지역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의 사마시 입격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상주지역 사족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3.2.9 임원록

- 表題 : (墨書) 任員錄 一
- 판사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785-1800年
- 형태사항 : 零本 1册(9張). 無界, 8~9行字數不定, 31.7×31.1cm. 線裝(5針眼)
- 印記 : (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이 책은 1785년부터 1800년까지 상주향교의 校任을 기록한 명단이다. 날짜를 기록한 후 직임과 성명을 기재하는 순으로 작성되었다. 기재된 교임 가운데 연임 또는 재임이 수차례 나타나며 이러한 중복을 제외하면 총 126명의 교임이 확인된다. 다음의 <표 7>은 날짜별로 기록된 교임의 명단을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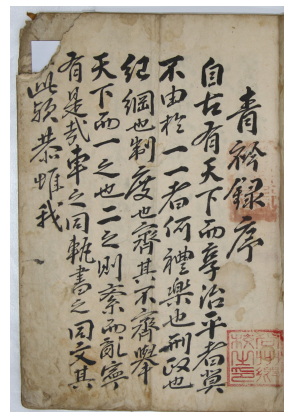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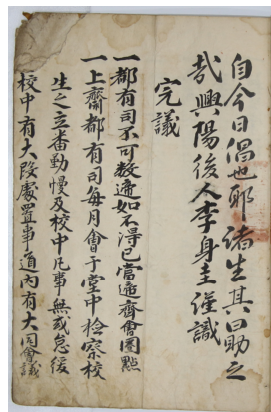
<표 7> 「임원록」에 기록된 날짜별 교임 명단

날짜	교임 명단
乙巳(1785) 7월	上齋 姜世晉 / 掌議 金彥高·成恒柱 / 齋任 趙元城·趙俊民·金濟大 …
丁未(1787) 11월 1일	上有司 金濟亨 / 掌議 金兌煥·申確然 / 齋任 金益和·韓山斗 / 掌議 黃日復 …
己酉(1789) 夏	都有司 金智俊 / 都有司 成東烈 / 掌議 具思默·金俊
己酉(1789) 7월 24일	上齋 金英協 / 掌議 孟鎮泰·成維柱 / 齋任 鄭哲明·成最謙·李任重
庚戌(1790) 6월 26일	都有司 成兢烈 / 齋任 申達增·姜世大
辛亥(1791) 7월	都有司 李禧遠 / 掌議 金鼎俊·孫必慶·李敬儒 / 齋任 呂文復·姜世德·康周爽 …
甲寅(1794) 7월	都有司 孫曾顯 / 掌議 金載顯·姜世謨 / 齋任 李文儉·金檀·黃達休
乙卯(1795) 正月	都有司 成在洛 / 掌議 孫泰慶·金載顯 / 齋任 李文儉·黃達休
乙卯(1795) 8월	都有司 姜必章 / 掌議 孫泰慶·金載顯 / 齋任 成若烈·申景欽
乙卯(1795) 12월	都有司 孟鎮泰 / 掌議 成學烈·蔡著璧 / 齋任 成若烈
3월 30일	掌議 李挺儒 / 齋任 柳光潯·黃有慶
4월 보름	掌議 鄭宰魯
丙辰(1796) 8월	都有司 洪聖天 / 掌議 金載顯·金獻敬 / 齋任 成裕烈·蔡著旭
閏 6월 1일	掌議 李挺儒 / 齋有司 姜長欽
丁巳(1797) 10월	都有司 成恒柱 / 掌議 金達敏 / 齋有司 鄭象乾
戊午(1798) 8월	都有司 趙龜洙 / 掌議 柳光渥 / 齋有司 成極烈·丁若詩[改 義綰]
己未(1799) 봄	都有司 成鼎烈 / 掌議 姜宗欽·成在善 / 齋任 趙廷一·蔡元東
庚申(1800) 봄	都有司 李達延 / 掌議 趙俊命·安想 / 齋有司 金益厚·姜瑞馨·成錫大·崔富遜

상주향교의 교임은 시기별로 그 명칭이나 인원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도유사 1인, 장의 2인, 유사 또는 재임 2인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책에 기록된 교임 가운데 14인이 흥암서원의 교임관련 자료에도 입록되어 있어 당시 노론계가 서원뿐만 아니라 향교의 교임직에도 활발히 진출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3.3 규정 및 규율 관련 자료

3.3.1 청금록완의



<그림 5> 李身圭의 靑衿錄序, 본문 제4장의 完議

- 表 題 : (墨書) 靑衿錄完議
- 판 사 항 : 筆寫本
- 필사시기 : 1664-1671年
- 형태사항 : 不分卷 1冊(11張). 無界, 7行 字數不定, 34.3×22.6cm. 線裝(5針眼)
- 印 記 : (長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鄕校之印]
- 序 文 : (靑衿錄序) 自古有天下而享治平者…興陽後人李身圭謹識

完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을 적어 지키도록 하는 일종의 약속 문서로서, 『청금록완의』는 상주향교에서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의된 다양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卷首에 기록된 1664년 李身圭의 서문을 통해 볼 때 『청금록』을 작성한 이유는 양반사족을 靑衿으로 구별하여 권위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이어서 같은 해에 작성된 ‘완의’가 있는데,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一. 도유사는 자주 교체할 수 없으며 만약 부득이하여 교체할 때는 모두 모여 뽑을 것.
- 一. 上齋 도유사는 매월 堂中에 모여 교생의 立番과 부지런과 게으름 등의 향교의 전반적 생활을 검사하여 혹 태만하고 해이함이 없도록 할 것. 향교 생활 중에 큰 일이 나서 道內에 크게 모여 의논할 일이 있으면 상재 도유사는 각 面에 글을 보내 청금유생을 모을 것.
- 一. 청금유생으로 大祭에 두 번 불참자는 장부에서 삭제하고 세 번 불참자는 퇴출함.
- 一. 청금유생으로 공식적 모임에 성실하지 않은 자는 경중에 따라 벌을 내릴 것.
- 一. 상재 도유사가 근실하게 임무를 살피지 않으면 公舍 시에 벌을 논하여 탄핵하여 교체 할 것.
- 一. 교생으로 체면이 떨어지고 도리에 어긋나는 자가 있으면 상재 도유사는 행태가 가벼울 경우 금지하여 벌하고 무거운 경우는 官에 알릴 것.
- 一. 교생으로 完議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는 자는 鄕堂에 통고하여 천한 임무에 담당을 맡길 것.
- 一. 교생으로 番에 빠진 자는 관가에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상재 도유사가 벌하고 두 번 빠진 즉시 官에 알릴 것.
- 一. 교생의 나이는 50으로 한정한다.
- 一. 과거시험 시 명단은 도유사 및 道南齋任[도남서원 임원]이 상의하여 수정한다. 도유사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首擧子와 兩院齋任[상주향교·도남서원 임원]과 유생에 대한 논의를 한다.

마지막으로 卷末에는 1671년에 작성한 辛亥完議가 추가로 작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一. 도유사는 매년 봄 석전제 때 전해 받고 이듬해 봄에 사람을 갈아들인다. 돈과 곡식을 만약 다 거두지 못하고, 다 전해 받기 전에 나누어준 것 있으면 둘 중에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할 것.
- 一. 청금유생은 이름이 儒案에 있어 春秋大享 외에는 일을 맡은 것이 없다. 근년 이래로 유생이 모두 스스로 편리한 계획을 품어서 많이 참여하지 않아 직을 맡은 사람이 매양 부족할 염려가 있으니 진실로 가히 한심하다. 두 번 불참, 세 번 불참에 대한 벌은 이미 이전의 완의에 정해 있으니 지금부터 시작하여 연고 없이 한 번 불참한 자 및 單子를 올릴 때 두 번 필요치 않은 자는 관문 집사가 한차례 벌을 정할 것.
- 一. 춘추대제 때 음식과 술을 관장하는 有司가 이유 없이 불참할 때는 장부에서 삭제할 것.

이상과 같이 위의 두 완의는 향교의 구성원의 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향교의 책임자인 교임의 선출방법과 청금유생의 역할, 校生の 역할 등 교임과 청금유생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3.2 유안절목

- 卷首題：儒案節目
- 表題：(墨書) 儒案節目
- 판사향：筆寫本
- 필사시기：1773年
- 형태사항：不分卷 1冊(3張). 無界, 7行 10字, 33.7×32.2cm. 線裝(5針眼)
- 印記：(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본 상주향교의 「유안절목」은 淸衿儒生의 入錄 자격을 규정한 절목으로 청금유생의 역할과 교생에 대한 통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내용의 끝에 ‘癸巳三月初四日’의 작성시기가 있고 그 다음 행에 작성자인 牧使와 그의 수결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聖敎로 儒錄을 정리하고자 하나 분란과 다툼의 폐단이 생길 것이 걱정되니 이를 節目에 게재하여 서로 어울리고 진정시키는 길로 삼는다. 만약 절목을 준수하지 않고 폐단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官으로부터 嚴重히 處置될 것이니 모두 알아들 것이다.

- 一. 鄉案舊家는 하나같이 모두 入錄한다.
- 一. 비록 鄉外라도 만약 좋은 행실이 있다면 入錄한다.
- 一. 비록 鄉內라도 만약 나쁜 행실이 있으면 入錄을 허락하지 않는다.
- 一. 무거운 형벌을 받은 자는 入錄을 허락하지 않는다.
- 一. 혹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자는 入錄을 허락하지 않는다.
- 一. 혹 개인적인 흠결이 있는 자는 入錄을 허락하지 않는다.
- 一. 初에 양반의 맥이 없는 자는 入錄을 허락하지 않는다.
- 一. 다투어 분란을 일으키는 자는 入錄을 허락하지 않는다.
- 一. 公평함을 등지고 사사로움을 좇는 자 또한 마땅히 걸러 낸다.

3.3.3 향약절목

- 表題：(墨書) 鄉約節目
- 裏題：鄉約節目
- 판사향：筆寫本
- 필사시기：1835年
- 형태사항：不分卷 1冊(9張). 四周單邊(鄣寫), 有界(鄣寫), 12行字數不定, 34.6×27.9cm. 線裝(5針眼)
- 印記：(長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향약절목』은 1835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상주 지역의 사족인 趙德, 李乘天, 宋奎弼 등 13명에 의해 작성된 향약이다.

권수에는 鄉約四條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亂相恤이 적혀 있다. 이어서 본문은 呂氏條約과 이를 세분화한 朱子增損約條, 다음으로 退溪李先生鄉約附, 新增約條 등의 규약이 기록되어 있다. 규약에 이어 稟目이 수록되어 있는데, 품목은 지방의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양식의 한 종류로 내용을 수령에게 보고하여 보장받기 위한 문서이다. 풍속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향약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하였다. 이에 대한 처분인 ‘題辭’에는 향약의 문장이 번거로워 이를 수정하고, 시폐증보는 관민이 함께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사를 잘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에는 ‘各面都約正望記’가 있다. 여기서 都約正은 향약의 대표를 맡을 명단을 기록한 것으로 조덕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후보의 명단이 있는데 직책과 성명을 쓰고 하단에는 담당 면을 기재하였다. 1인당 1~4개의 면을 담당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책을 통해 19세기에 새롭게 향약을 마련하여 시행한 점에서 지역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상주 사족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수록된 내용 중 시폐증보를 통해 당시 가장 심각했던 사회의 폐단들을 알 수 있으므로 지역사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3.4 향회완의

- 卷首題：鄉會完議
- 表題：(墨書) 鄉會完議
- 필사시기：癸卯 9월 2日
- 판사향：筆寫本
- 형태사항：不分卷 1冊(4張). 無界, 7行 字數不定, 25.0×25.2cm. 線裝(5針眼, 褐絲)
- 印記：(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향회완의』는 계묘년 9월 2일에 상주지역에서 鄉會를 개최하여 의논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작성 동기와 목적 그리고 지켜야 할 사항 및 작성 시기, 참석한 사람들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다음의 <표 8>은 『향회완의』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8> 『향회완의』의 내용 정리

<p>■ 동기</p>	<p>- 근래에 고을의 운수가 형통하여 대과, 소과에 장원급제한 인물이 고장 안에 줄을 이었으니, 참으로 풍속이 순박하고 아름다워 이웃 고을의 본보기가 됨.</p> <p>- 그런데 어찌 고을의 기강이 크게 무너지고 선비의 풍습이 날마다 투박해졌는가? 이 때문에 아전과 서리들이 농단하고 포악하여 못하는 것이 없음.</p> <p>- 만약 이대로 퇴폐해 가는데도 조금도 경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쁜 고을로 치부됨을 피하지 못할 상황이니, 어찌 매우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p>
-------------	---

<p>■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의 향회는 대개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것임. - 그러나 반드시 큰 논란이 자리를 비운 날에 마침 일어나서 분별하여 묻고 논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점이 유독 아쉬움. - 이후로부터는 선배들이 남긴 뜻을 한결같이 준수하여 매번 정월 초하루 모임에 고을 안의 노인과 젊은이가 일제히 와서 참석하여 관아에서 성주를 뵈고 이참에 변통함. 상중하를 따지지 않고 범한 죄에 따라 각각 질책하여 징벌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도리임. - 고을에서 알린 대로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증론에 따라 처벌하고 경계시켜서 풍습을 매우 좋게 만들 것이니, 다만 이 이후로 온 고을의 군자들이 모두 와서 모이기를 바람. - 만약 스스로 수양하고 경계해서 고을의 기강이 바로잡히고 사풍이 아름다워져서 계획하고 실시한 뜻을 실추시키지 않는다면 매우 다행일 것임.
<p>■ 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들이 멀시하고 교리들이 초하루와 보름에 望賀할 때에 강제로 책납한 폐단의 단서가 한둘이 아닌데, 혹은 西齋의 집사에게까지 번졌으니, 그 습성이 매우 나쁘다. 때때로 향청에 상의하여 경중에 따라 죄를 다스릴 것. - 校中에서 벗과 우리들이 변통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의 단서가 한둘이 아니니, 향청의 임원과 상의하여 처리할 것.

위의 「향회완의」 내용에 따르면 상주에서 장원급제한 인물이 이어지고 풍속이 純一하여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고을의 기강이 무너지고 풍습이 날마다 투박하며 아전과 서리들의 농간이 포악해짐을 걱정하여 향회를 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매번 정월 초하루에 고을 안의 노인과 젊은이들이 일제히 관아에 모여 城主를 만나 범한 죄질에 따라 질책 및 징벌하기로 중지를 모으고, 마지막에 절목을 정하고 자신의 직책과 성씨를 쓰고 수결을 하고 있다.

3.4 기타 자료

3.4.1 향중면역완의안



<그림 6> 「향중면역완의안」 앞표지, 본문 제1장 앞면

- 表 題：(墨書) 鄉中免役完議案
- 刊 事 項：筆寫本
- 필사시기：[17世紀 初半；1609年·1612年·1623年]
- 형태사항：不分卷 1冊. 無界, 行字數不定, 32.4×14.2cm. 假綴
- 印 記：(長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향중면역완의안』은 1609년에 鄉役을 면제하는 내용을 증빙하는 문서이다. 내용은 각 사안별로 ① 萬曆三十七年乙酉(1609)正月初三日, ② 乙酉(1609)二月初六日, ③ 壬子(1612)閏十一月十五日, ④ 癸亥(1623)六月二十六日에 각각 작성되었다.

1609년 정월에는 幼學 裴曙困, 正兵 裴應禮, 鄉所所屬 南金伊 등 3명이 각각 역을 면제 받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학 배서곤이 고을의 소임 중 納工人手功 목화 15필에 대해 훗날에 각 항목에 대해서 감관인 望報할 때에 잠시 미루어 둘 것
- 정병 배응례가 面 중에 衛色掌, 面主人, 隊正, 旅帥, 差使 등의 일에 책임을 면하려 하는데, 납공인 수공 목화 14필에 대해 훗날에 侵責하는 폐단이 있다면 일절 금하게 할 것
- 鄉所의 소속 납금이를 15년에 한하여 納質하는데 철, 무명 15필을 제한하여 부릴 것

한편 1609년 2월에는 정병 姜欣金, 1612년에는 書員 朴仍邑同, 兵從 京生, 差備 允福 등 3명, 1623년에는 鄉書員 金永老, 金彥福 등 2명이 역을 면제 받았다. 각각 면제를 대가로 납입한 물품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면제 대가 물품

시기	이름	면역 납부
1609년 정월 초3일	배서곤	工人手功木 15疋
	배응례	工人手功木 14疋
	납금이	質鐵木 15疋
1609년 2월 초6일	강흔금	工人手功木 15疋
1612년 11월 15일	박잉읍동	木綿 15疋
	경생	木綿 15疋
	윤복	木綿 15疋
1623년 6월 26일	김영노	處 20疋
	김언복	處木 20疋

면역의 대가로 받은 물품은 장인에게 일을 시킨 대가, 또는 향청에서 필요로 하는 기물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거나 송별비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책을 통해 17세기 상주지역의 鄉役을 살펴보고, 향역의 권한은 지방의 향회를 주도하는 사족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50년(영조 26) 균역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수취체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4.2 전장기

- 表 題：(墨書) 傳掌記 / 乙卯四月初八日
- 卷 首 題：乙卯四月初八日傳掌記
- 필사시기：[1639年 以後-1759年 以前]
- 판 사 항：筆寫本
- 형태사항：不分卷 1冊(3張). 行字數不定, 註單行. 假綴(黃絲綴)
- 表 紙：黃紙
- 印 記：(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본 「전장기」는 서책 관리를 위해 별도로 작성된 기록물로 假綴된 앞표지와 권수면의 印記로 볼 때, 상주향교에 보관된 서책의 현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전장기’는 조선시대에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기 위해 관장하던 물품을 기록한 장부로 물품 내역과 담당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전장기는 ‘傳掌件記’라고도 하며 주로 물품의 수량, 상태, 담당자, 소장처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본 책에는 상주향교에 비치된 四書三經類, 문집류, 書冊置付記, 校上書冊置付記, 教旨, 陳設圖 등의 현황을 行書體로 기록하고 있다. 본문의 서술방식은 크게 서명·책수·현황·특이사항을 기록해 두었는데, 예로 들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전장기」 기록 내용

서명	현황
周易	舊備大全十卷 新備大全十一卷 解四卷
詩傳	新備大全十一卷 解七卷內一卷前無 舊備大全十卷庚戌傳掌記全失云
論語	舊備大全二十二卷 舊解八卷 新備大全七卷 新備解四卷
孟子	舊備大全十九卷內七卷壬子年十月十三日/借去解三十卷亦借去 舊解九卷 新備大全七卷 新解六卷

본문의 내용은 먼저 서책 등의 서명을 기록하고, 그 아래 서명보다는 조금 작은 글자로 위의 표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 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전에 소장된 것을 ‘舊備’로, 새롭게 비치된 것을 ‘新備’로 기록하고 卷數를 기입해 놓았다. 또한 일부 서책의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 표에서 『맹자대전』의 경우 임자년 10월 13일에 19권 가운데 7권을 빌려갔고 諺解本 30권도 또한 남이 빌려간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다.

한편 『전장기』에는 『맹자』의 경우와 같이 藏書의 변동 시기를 기술한 干支가 확인이 되기도 한다. 『시전』의 경우 ‘舊備大奎十卷庚戌傳掌記全失云’이라고 하여 경술년에 전장기를 작성할 당시 이전에 비치되었던 『시전대전』이 모두 逸失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소학』의 경우에도 ‘舊備大奎十一卷內庚戌傳掌記時一卷無’라고 하여 전장기를 통한 장서 점검의 결과도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제 3장 뒷면의 교지 항목 아래 ‘萬曆甲寅呈文一卷’이라고 하여 만력 갑인년의 呈文 1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력 갑인년은 1614년(만력 42, 광해 6)이다. 이러한 간지 정보를 기준으로 조선시대 ‘을묘년’·‘경술년’·‘임자년’의 연도를 보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전장기」에서 확인되는 간지의 서기연도

간지	서기연도
萬曆 甲寅	1614
乙卯	1615, 1675, 1735, 1795, 1855
庚戌	1670, 1730, 1790, 1850
壬子	1672, 1732, 1792, 1852

「전장기」에서 확인되는 간지의 정보를 기준으로 볼 때, 만력 갑인년(1614)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본 「전장기」에 기록된 문집 가운데 李堉(1560~1635)의 문집인 『蒼石集』이 간행된 시기를 바탕으로 「전장기」가 작성된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준의 『창석집』은 서문과 발문이 없으며 연보, 행장 등에도 문집의 간행과 관련된 기사가 전혀 없어 그 간행 경위나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창석집』 속집 권5의 題亂稿後에 후세에 전할 것까지는 없으나 일가 자손의 완상거리로 모아놓는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연보에 長子인 李大圭에게 소장하고 있던 문적을 넘겨주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시문을 수집하여 정리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준의 형인 李堉(1558~1648)이 1639년(인조 17) “子姪들에게 명하여 書堂에서 『창석유고』를 정사하게 하였다(月澗年譜).”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전이 동생의 유고를 다시 정리하여 편차해 놓은 듯하다. 이전이 정리한 이준의 유고가 어느 시기에 간행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1743년경과 1750년경에 편찬된 『三南所藏冊板』 및 『諸道冊板錄』의 ‘상주’조에 『창석집』이 확인된다. 또한 책판 목록 가운데 편찬연대가 확실한 것으로 1759년에 편찬된 『完營冊板目錄』의 ‘상주’조 “蒼石集 白紙 二十束 李堉 著”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또한 正祖의 명으로 徐有渠 등이 1796년에

완성한 전국 책판목록인 『鏤板考』에 『창석집』 18권이 상주 玉成書院에 보관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이준의 『창석집』이 최소한 1759년 이전에 상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을묘사월초팔일 전장기』의 을묘는 이전이 자질들에게 『창석유고』를 정사하게 한 1639년 이후 1759년 이전 을묘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상주향교의 장서 형성과 변화 등을 대략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조선후기 향교에서 어떤 장서를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 지방향교의 장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4.3 향교전답도조봉상성책

- 表 題 : (墨書) 鄉校田畝賭租捧上成冊
- 刊 事 項 : 筆寫本
- 필사시기 : [乙卯年(18世紀)]
- 형태사항 : 不分卷 1冊(9張). 四周單邊(罫寫), 有界(罫寫), 9行 字數不定, 32.3×29.6cm. 線裝(5針眼)
- 印 記 : (長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향교전답도조봉상성책』은 상주향교에서 소유한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세금의 명목으로 내는 곡식, 즉 賭租의 납부에 관한 것을 기록한 成冊이다. 표지에 乙卯가 명시되어 도조가 일반화된 18세기 이후인 1735년 또는 1795년 정도로 추정된다. 내용에는 토지의 경작자와 세금 납부금액이 기록되어 있다. 소작농은 상당수가 노비이며, 양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입 방식은 대체적으로 “논의 평수[마지기] + 세금[租, 錢] + 時 + 성명”의 형식으로 기입되어 있다. 이름 앞에 노비의 경우에는 ‘奴’라고 기입하였다. 이후 부가적인 내용은 종이를 덧대어 붙여 작성하였는데, 덧붙인 종이에 세금을 미납한 명단에는 ‘未捧’으로 기입하고 세금을 낸 명단에는 ‘捧上’으로 기입하였다. 세금 중 일부만을 납부 했을 경우에는 ‘預’를 쓰고 납부량을 기입하였다.

1인당 경작 규모는 대개 논을 기준할 때 세 마지기에서 다섯 마지기 사이이며, 이에 해당하는 곡식으로 내는 세금은 5마지기 당 3섬[10말] 정도이다. 농사를 지은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돈으로 납부하기도 하였다. 세금의 총액은 대략 곡식이 139섬 10말, 현금이 15량 4전 4푼 정도이다. 권말에는 총 田畝 402斗 5刀落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상주향교의 도조의 규모를 알 수 있으며, 전답은 大坪面, 內北面 등에 위치하고 있다.

이 책은 상주향교 관련 자료 중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며 소유한 토지 및 노비의 규모를 파악하는데도 중요하다. 하지만 보관상의 문제로 훼손된 부분이 많아 정확한 수치를 통계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3.4.4 매음나선생병자란호성행적

- 表 題：梅陰羅先生丙子亂護聖行蹟
- 판 사 항：筆寫本
- 필사시기：18世紀末 以後
- 형태사항：不分卷 1册(4張). 無界, 行字數不定, 30.4×19.0cm. 假綴(3針眼)
- 印 記：(正方形 四角朱印, 陽刻) [尙州鄉校之印]

「매음나선생병자란호성행적」은 羅以俊, 鄭信國, 朴濟美의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이들은 병자호란 당시 성균관에 모시고 있던 공자를 포함한 선현들의 위패를 지킨 인물들이다. 후대에 이들의 공을 인정하고 이들의 활약상을 문서로 작성하여, 백성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는 교훈을 얻게 하였다. 「榮川郡誌」, 「泗溪地誌」, 泗溪書堂의 기록, 「國朝寶鑑」 등에 나타난 그들의 행적을 초록한 것으로 특히 병자호란 당시의 공적을 기록하고 있다.

나이준은 榮川[현재 영주] 출신으로 상주향교에 이 책이 현전하는 이유는 불분명하다. 다만 향교의 상징과도 같은 공자와 선현의 위패를 이들이 수호했다는 점을 널리 본받기 위해 이러한 기록이 전해진 것이라 추정된다. 이 자료를 통해 병자호란 당시 나이준을 비롯한 정신국·박산미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단편적이지만 나이준을 배향한 泗溪書院의 변천을 확인할 수 있다.

3.5 소장자료의 가치

상주향교 소장 고서는 모두 23종으로 본 자료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제례 관련 자료, 상주향교 명부, 규정 및 규율 관련 자료, 기타 자료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제례 관련 자료는 「駿奔錄」, 「告由事實錄」, 「焚香錄」, 「釋奠正配位饌實圖」 등 모두 6종으로 향교에서 시행된 고유제 사실과 제례를 주관한 인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상주향교 명부는 모두 9종으로 상주향교 입록 구성원을 살펴볼 수 있는 「校案」과 「靑衿錄」, 사마시의 합격 명단을 기록해 놓은 「司馬錄」 등이 있다. 향교의 입록 자격 및 규율 등을 엮어놓은 자료로 「靑衿錄完議」, 「儒案節目」, 「鄉約節目」, 「鄉會完議」 등의 4종이 있다.

더불어 기타 자료로 서책관리의 목적으로 상주향교에서 작성된 「傳掌記」, 免役に 관한 증빙 문서인 「鄉中免役完議案」, 병자호란 때 공자를 비롯한 선현의 위패를 지킨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한 「梅隱羅先生丙子亂護聖行蹟」 등이 있다.

본 23종의 자료는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성되어 상주향교에서 전래된 것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조선 후기 상주향교의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족의 계통을 파악할 수 있고, 당시 사회적 지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상주 사족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표 12> 소장자료의 구성 및 자료적 가치

주제별 분류	서명	종수(비율)	자료적 가치
제례 관련 자료	駿奔錄	6종 (26.0%)	향교에서 시행된 고유제 사실과 제례를 주관한 인사 등에 관한 기록이다. 이를 통해 당시 향교의 교임 구성을 파악할 수 있고, 상주와 호서지역 노론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焚香錄 丁丑正月朔至庚辰正月朔		
	焚香錄 丙午十一月初丁未十一月初一日		
	焚香錄-假題		
	告由事實錄		
	釋奠正配位饌實圖		
상주향교 명부	司馬錄	9종 (39.1%)	상주지역 사마시 합격자 및 상주향교 입록 구성원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를 통해 상주지역 사족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고, 상주향교의 인적구성 및 향교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족의 계통을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노론계가 향교의 교임직에 활발히 진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校案 (1)		
	校案 (2)		
	尙山鄉彥錄		
	靑衿錄		
	靑衿錄 加錄		
	丁卯加錄		
	鄉案加錄草		
任員錄 一			
규정 및 규율 관련 자료	靑衿錄完議	4종 (17.4%)	상주향교의 입록 자격 및 규율, 향약의 절목 등을 엮어놓은 자료들로 지역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상주 사족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儒案節目		
	鄉約節目		
	鄉會完議		
기타 자료	鄉中免役完議案	4종 (17.4%)	鄉役을 면제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서책 관리를 위해 작성된 문서, 賭租의 납부 기록, 인물의 행적에 관한 기록 등이 있다. 조선후기 상주향교를 비롯한 상주지역 향토문화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들이다.
	傳掌記		
	鄉校田畝賭租捧上成冊		
	梅陰羅先生丙子亂護聖行蹟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상주향교 소장 자료 23건은 모두 조선후기에 작성된 필사본이다.

첫째, 제례 관련 자료는 모두 6종이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말까지 작성된 「분향록」 3종을 비롯한 1878년과 1890년에 걸쳐 작성된 「고유사실록」 등이 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 향교에서 거행된 제례인 삭망제를 주관했던 인사, 그리고 고유제의 시행과정과 제례의 절차, 축문 양식, 관에서 내린 명령 등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표지가 유실된 ‘釋奠正配位饌實圖’는饌實圖, 位版圖 등의 제례에 관련된 그림을 설명해 놓았다.

둘째, 상주향교 관련 명부는 모두 9종이다. 상주지역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여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인물들의 명부를 기록한 「사마록」, 상주지역 양반들의 향교 입록 명부인 「교안」, 「청금록」, 「임원록」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조선 후기 상주향교의 인적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노론계가 서원뿐만 아니라 향교의 교임직에도 활발하게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규정 및 규율 관련 자료는 모두 4종이다. 상주향교에서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의된 다양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청금록완의」, 「유안절목」이 있고, 상주지역에서 鄉會를 개최하여 의논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기록한 「향회완의」가 있다. 또한 1835년 상주 지역 사족들에 의해 작성된 향약인 「향약절목」은 지역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상주 사족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기타로 분류한 자료 4종이 있다. 「향중면역완의안」은 1609년에 鄉役을 면제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로 1750년 균역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수취체제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상주향교에 보관된 서책의 현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전장기」는 조선 후기 향교의 장서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상주향교에서 소유한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세금의 명목으로 내는 賭租의 납부에 관한 것을 기록하여 성책한 「향교전답도조봉상성책」 등이 있다. 이상의 자료들은 조선 후기 상주지역 향촌사회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대민. 『韓國의 鄉校研究』. 釜山: 慶星大學校出版部, 1992.
 정형우, 윤병태.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보경문화사, 1995.

[논문]

- 김지민. “鄉校建築의 造營規範에 관한 研究.” 『大寒建築學會論文集』 9권 12호(1993). 49-61.
 박광현. “刊經都監 刊行 佛書의 서지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8.
 裴賢淑. “尙州 東學教堂 記錄物의 書誌學的 特徵과 價値.” 『書誌學研究』 第61輯(2015. 3). 31-75.
 裴賢淑. “朝鮮朝 書堂의 書籍 刊行과 收藏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5輯(2006. 12). 5-40.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2016. 12). 483-514.
 유기선. “17~18세기 尙州鄉校의 靑衿儒生.” 『韓國書院學報』 제5호(2017). 33-90.
 윤동원. “慶北地方 現存 板本 考察.” 『디지털도서관』 제69호(2013). 86-106.
 정명섭, 조영화. “尙州鄉校의 配置形式 變遷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3(2004). 7-18.
 최연주. “조선전기 간경도감刊經都監 운용과 상주목尙州牧.” 『국학연구』 30(2016). 293-328.

[전자정보원]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index.jsp>)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http://yn.ugyo.net/index.do>)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Yeonjoo. 2016. "Gangyeongdogam (刊經都監) management and Sangjumok (尙州牧) of Early Joseon Dynasty." *Korean studies*, 30: 293-328.
- Chung, Myungsup, & Cho, Youngwha. 2004. "A Study on the Transitions in the Site Plan of Sangju Confucian School."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13: 7-18.
- Jeong, HyeongWoo, & Yun, ByeongTae. 1995. *A List of Korean Woodblock*. Seoul: BokyeongMunhwasa.
- Kang, Daemin. 1992. *A Study of Korean Hyanggyo*. Busan: Kyeongsung University publishing department.
- Kim, Jimin, 1993. "study on the building pattern of Hyang-gyo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search*, 9(12): 49-61.
- Pae, HyonSuk. 2015.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Materials Stored in Sangju Donghak Church."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1: 31-75.
- Pae, HyonSuk. 2006. "A Study on the Books Published and Stored at the Seodangs in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35: 5-40.
- Park, KwangHeon. 2018. *The study of GanGyeong-Dogam and the publication of Buddhist scriptures by GanGyeong-Dogam*. Doctoral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Song, Sukhyun. 2016. "A management of Donam Seowon and trend of Sangju Sajok from the late 17th to early 18th century." *The Journal of Choson Dynasty History*, 79: 483-514.
- Yoo, Kisun. 2017. "Chungkeum Yusaeng of Sangju Hyanggyo in the 17th-18th centuries." *The Journal of Korean Seowon Studies*, 5: 33-90.
- Yun, DongWon. 2013. "A Study on the Woodblock-printed Books Being Inherited in the Gyeongbook Region." *Digital library*, 69: 86-106.